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 이종윤 원로목사

이미 만들어진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도 있고, 자신이 만들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도 있다.

전자(前者)에 비해 후자(後者)가 창조적인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옥중에 갇혀 있던 바울 사도에게는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했다. 간수를 비롯해서 그와 접촉하는 가이사의 집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세상이 내게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할 일이 없다고 빈둥거리기 시작하면 좀처럼 그에게는 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을 이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자기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만들어 할 줄 아는 슬기와 용기를 갖춘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대학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내 앞길은 평탄대로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영적 성숙성(Spiritual Maturity)을 갖추고 학문의 지고성(Academic Excellence)으로 훈련받은 창조적 인생관을 갖고 전진할 수 있는 인재가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창조적인 인재란 또한 이웃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한다.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노예로서 배신자요, 무뢰한이었건만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선도하여 자기의 심복지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직장에서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세상을 저주하고 일터를 비난하는 수가 있다. 어리석은 짓이다. 내가 뭐기에 세상이 내게 굽신거리고, 직장이 나를 상전 취급 대우하겠는가? 내가 먼저 남을 위해 주고, 친절을 베풀면서 겸손히 섬기면 자연히 친구가 생길 것이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다는 식으로 이웃과 담을 쌓아 가면 그는 이웃이 없는 고독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악인을 선인으로, 쓸모없는 이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품위 있는 인격과 전문인이 될 때 창조자가 된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만드는 창조적 인물은 환경을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감옥이란 지경과 불결하고 부자유하여 고생스런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감옥을 기도와 묵상과 영적교제의 장소로 만들뿐만 아니라 신앙성경 중 상당 부분을 기록할 수 있는 성소(Holy Place)로 만들었다.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 살 줄을 모른다면 에덴동산에 갔다 놓는다고 해도 별 수가 없을 것이다. 일을 만들어 하고, 친구를 만들어 사귀고, 환경을 만들어 사는 창조적 인재가 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창조에 동참자가 되고 쓰임 받는 일꾼인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2015년 6월 27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첫째 주,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예배에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주중 안내드린 바와 같이 교회 직원 중 한 명의 양성 판정 이후 한 주간 동안 교회는 방역과 검사에 전력을 기울였고, 방역당국에서도 정상적인 예배와 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하여 이번 주 일 교회 예배는 정상 진행됩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는 최근 상황에서 가능한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해 교회학교는 2주간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번 주일로 예정했던 30주년 기념 성경 2차 배부도 한 주 연기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에 대해 이미 공지해 드린대로, 지상주차 공간과 지하 3층은 교회 직원과 종일 봉사성도 등 장기 주차할 차량만 이용해 주시고, 예배시간 동안만 주차하실 성도들께서는 지하 1, 2층에 주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1205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가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손달익 Senior Pastor Rev. Son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빛으로 오신 주님 ”

■ 요 1:1-14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Advent)은 ‘오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땅에 평화와 구원을 주시려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표현 7가지가 있습니다. 1)나는 생명의 떡이다(6:35), 2)나는 세상의 빛이다(8:12), 3)나는 양의 문이다(10:7), 4)나는 선한 목자다(10:11), 5)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11:25), 6)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14:6), 7)나는 참 포도나무다(15:1). 그 가운데 두 번째 표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8:12),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9:5) 세상은 불신앙과 타락, 고통과 절망 등 어두움의 세력이 가득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창궐은 과학의 힘만으로는 감당키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 빛을 주시는 하나님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힘입니다. 창조 이전의 모습은 허공과 무질서, 짙은 흑암이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빛이라는 용어를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과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어두움의 상태로 말하는 동시에 빛은 정반대의 상황을 상징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엡 5:8,9) 빛이란 우리 삶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죄와 악한 습성, 세상의 불의함과 악함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입니다.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발전과 진보가 이루어져왔습니다. 정치적 어두움, 경제적 어두움, 지적 어두움들이 사라져갔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생명, 사랑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2.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때가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 부릅니다. 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씀이었고, 둘째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세상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역사 속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시지만 동시에 역사적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실은 그가 역사적 존재로 실제 우리 곁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12절 말씀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밝혀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알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3. 빛으로 사는 사람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갈 것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4-16) 신앙인은 은둔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2,13)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사랑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를 영접하고 믿고 따름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대림절은 은혜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영혼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시고 불확실한 미래를 밝히시는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 빛을 주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려 오늘도 우리 곁에 오십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동수 목사	안인호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장석남 목사	이관규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시 5:7, 11...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16(구주강림2)...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98...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요 1:1-14...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빛으로 오신 주님”...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84(96)...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조동수 목사, 설교 :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사 7:14 인 도 자
 찬 송 421(210) 다 합 께
 기 도 김광태 집사
 성 경 행 10:24-48 인 도 자
 사명자대회 결과보고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 설 교 자
 * 찬 송 511(263)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안용곤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I부: 김혜영 권사 II 나미경 권사
 부: 성 경 행 11:1-18 인 도 자
 찬 양 대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생명 얻는 회개”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조동수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정기당회 / 12월 8일(수) 수요일 2부 예배 후 402호

◆ 알 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교회학교 - 비대면, 실시간 생중계
-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수요일부 예배 녹화 방송
-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정부의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교회 대면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599명	1,180명	2,779명	416명	2,250명



모범적 지도자 모세

나라가 어려울수록 좋은 지도자가 그리워진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다. 그는 자기 백성 구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지도자다.

바른 선택을 할 줄 안 모세는 바로의 공주와 맺은 인정의 줄을 끊고 자기 동족과 함께 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다. 최악의 낙을 포기하고 의의 길을 따랐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 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무엇이 모세를 이 같은 지도자가 되게 했나? 대답은 간단하다. ‘믿음으로’ 살고 결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심판날에 선각관에 판단하실 이를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도 많아 지기를 기도하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양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심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니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